

오피니언

光日春秋

장인순



이 시대를 과학기술이 역사를 선도하는 시대라 한다. 다양한 과학기술은 일반 대중은 물론 때론 과학자들의 생각마저 앞질러 갈만큼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사는 체험의 보고, 철학은 초월의 보고라고 한다던 과학은 정적으로 자연의 오묘한 질서에 의한 것으로 신비의 보고 혹은 진리의 보고라고 하고 싶다. 모든 학문을 통해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바로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文史哲科 700’을 권하는 이유

인문·사회·과학 등 다양한 책들을 접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하며 건강을 유지하듯이, 우리들의 생각이 다양한 지식을 통해서 균형 감각을 가지며 우리의 사고력과 상상력을 향상시켜, 지식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니고 모든 것은 배우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논리 말이다.

학장 가슴 아팠던 것은 시위현장에 나온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쇠파이프와 물대포가 난무하는 곳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 하는 것이다.

국민이 책을 가까이 하고, 특히 국민을 고객으로 하는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이 공부를 한다면 이런 사회적 논란은 크게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론인이 되려면,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먼저 공부하는 언론인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자세, 흑백논리가 아닌 다양한 색깔을 가진 무지개논리로 무장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을 왜곡 했을 때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언론인, 그가 바로 지혜 있고 용기가 있는 언론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필자의 서재에는 수백 권의 시집이 있다. 힘들었던 유학시절 시를 읽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을 다스렸다. 시처럼 순수하고, 시처럼 아름답고, 시처럼 예리한 언어는 없다.

이 땅에 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과 정치인 그리고 언론인에게 ‘문사철과 700’은 물론 시를 많이 읽으라고 권하고 싶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고문〉

어느 날 ‘문사철과(文史哲科) 600’이란 글을 읽고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아쉬웠던 것은 과학기술이 역사를 선도하는 시대에 과학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Kisti의 과학향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윤용현



‘밥이 보약’, ‘상차림이 부실해도 맛깔나는 밥 한 그릇 하나면 족하다’라는 말이 있다. 밥 한 사발에도 이토록 민감한 미각을 가진 민족의 입맛을 오늘날까지 지켜온 비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대부분 밀바닥만 가열하는 열판식에서 아래부터 천천히 가열되어 한 번에 많은 양의 밥을 지을 경우 증습방이 되곤 했다.

III압력밥솥은 쌀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밥의 영양분 파괴를 줄인다. 취사속도가 제각각에 소의 도구와 관련 요인들이 오랜 세월동안 내려온 생생한 경험과 노력이 숨쉬는 과학용어인 셈이다.

가마솥에도 과학이 ...

유지시켜 주며 맛있는 밥이 된다. 뚜껑이 가벼우면 수증기가 쉽게 빠져나가지만 무게가 너무 가벼우면 쌀이 부서져서 찰이 올라간다.

쌀이 잘 으러지면 대기압(1기압) 이상의 압력이 필요하다. 전통 가마솥 뚜껑 무게는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데 이런 원리를 전기압력밥솥이 그대로 적용했다.

이외에도 열전도율을 높게 하기 위해 내솥의 바깥부분을 금이나 구리로 얇게 입히기도 한다. 솥의 주요 재료인 스테인리스강은 열전도율이 낮아서 쌀에 열이 전달되는 속도가 느린 반면 구리는 12배, 금은 9배 정도 스테인리스강보다 열전도율이 높다.

기존의 전기압력밥솥은 보온과 취사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밥맛을 자유자재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백미, 잡곡, 된쌀, 진쌀 등을 가족들의 식성에 따라 지을 수 있고, 뽕이나 갖가지 요리도 가능하게끔 기술이 발전한 것이다.

전기압력밥솥의 기술도 점점 발전 중이다. 전기압력밥솥은 1990년대만 해도

기고

김형주



광주지역에 전라도의 공예문화를 한 곳에 집약해 보여줄 수 있는 전통공예 문화관의 조속한 건립을 제안한다.

공예문화관은 운영·관리 공간, 전통공예 전시실, 분야별·개인별 작업 공간, 교육 및 체험 공간으로 나눠 시설물을 구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도 같은 호남지역에서 공예문화의 진수를 보존·계승하고 이를 널리 교육하고 대중화할 공예문화관이 없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

공예문화관은 운영·관리 공간, 전통공예 전시실, 분야별·개인별 작업 공간, 교육 및 체험 공간으로 나눠 시설물을 구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광주공예문화관’ 건립 시급하다

풍부했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조건은 북지역민들의 여유로운 생활을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넉넉하고 후더한 심성을 길러낼 수 있는 바탕이 됐다.

이렇게 풍부한 공예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어 우리 나라 전통공예의 본산과

보기로서 광주 북구청에서 운영하는 북구전통공예학교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통·폐합으로 사용하지 않는 동사무소 건물을 개보수에 목공예, 짚공예, 매듭공예 등 여러 종류의 전통공예를 가르치는 교육시설로 거듭났다.

조상들의 숨결이 서려있는 옛 공예품의 수집 보존, 전통공예기술의 발굴 등 호남지역의 전통공예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며, 공예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하고 시민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인 광주공예문화관이 하루 속히 건립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사〉

피서지 노래방 소음 심각...방음시설 의무화해야

여름 휴가철이다. 많은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피서지로 떠난다. 일상을 잊고 편히 쉬면서 재충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고 찾았다가 잠까지 설치니 짜증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나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름 내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최남이·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시설

광주·전남 외국인 관광객 전국 ‘פלפל’라니

광주·전남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이라고 한다. 한국관광공사의 ‘2007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을 방문한 외국인인 전체의 각각 1.7%에 그쳤다.

개 노선에 불과하고 그나마 모두 중국에 치우쳐 있다. 외국인이 광주·전남을 찾기 위해서는 국내선 항공이나 고속버스, 철도 등 연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지역 관광산업 수준은 산업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다. 지역 외국인 관광객을 모두 합쳐봐도 남이섬, 대장금 테마파크 등 특정 지역 관광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역 관광산업의 낙후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의 미래전략산업이다. 관광산업의 활성화 없이는 지역발전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둑’ 무너진 공공요금 ‘물가대란’ 걱정이다

정부가 전기 요금에 이어 도시가스 요금을 연내에 인상키로 하면서 공공요금 인상 도미노가 불거져왔다.

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5.5%와 10.5%를 기록, 199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정부는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8.9, 11월 3개월에 걸쳐 30~50%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의 인상은 다른 물가에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현실에서 물가 불안심리가 확산되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주체들이 예상하는 물가상승률(기대 인플레이션)은 올 1분기만 해도 3.3%에 머물렀으나 지난달에는 4%를 넘었다.

물가고통은 심각하다. 지난달 소비자물

정부와 기업, 가계 모두 지혜를 모아 ‘물가대란’ 만은 막아야 한다.

無等鼓

원조(元祖) 논쟁은 유명 음식점에 국한되지 않는다. 발명품이나 특산물은 물론 정책까지 논쟁 대상이다.

원조가 어느 나라인지를 놓고 수십년간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골프와 축구의 발상지가 중국이라는 주장도 나왔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와 친솔 원조 논쟁을 벌이고 있다.

원조(元祖) 논쟁



각 지자체들이 역사적 인물의 출생지와 설화 배경, 특산물의 연구권을 주장하는 것은 지역의 명예가 걸려 있기 do 하지만 관련 축제와 기념행사 개최로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원조의 경쟁은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문제는 지역 이기주의에 근거한 과당 경쟁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물이나 세우기 위한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해야 한다.

Table with subscription and advertising information for Kwangju Ilbo.